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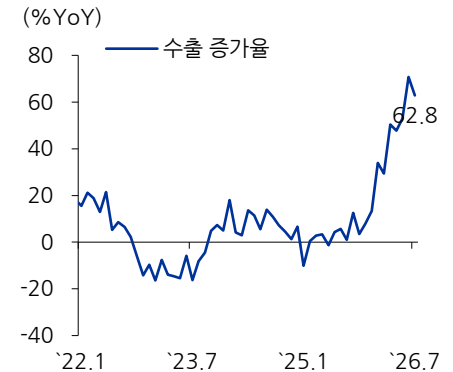
Korea Economy

경제/자산배분 방인성(PhD)
6145/isbang@eugenefn.com

7월 수출: 반도체 밖으로 넓어진 온기

- “ 2026년 7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+62.8% 증가한 988.9억 달러로 사상 첫 1,000억 달러를 돌파한 6월(1,022.5억 달러)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함.
- “ 무역수지는 303.2억 달러 흑자로 2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상회함. 7월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1,6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,341억 달러 확대됨.
- “ 7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+69.6% 증가한 41.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상회함. 월간 수출은 5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웃돌았고, 14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모멘텀이 유지됨.
- “ 품목별로는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. 반도체 집중도가 여전히 높으나, 4월까지 두드러졌던 품목 간 양극화가 완화되며 개선이 전 품목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확인됨.
- “ 7월 반도체 수출은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와 D램·낸드 고정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+178.8% 증가한 410.1억 달러를 기록함.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,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채택 가능성, 중국의 신규 AI 모델 출시 등 가격 하방 이슈에도 상승세가 유지됨.
- “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578.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+26.0% 증가함. 4월(+16.4%) 및 상반기 누계(+16%) 대비 개선 폭이 뚜렷하게 확대되며, 수출 회복이 반도체 단일 품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함.
- “ 지역별로는 9개 주요 지역 가운데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함. 중국(+96.2%)은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, 아세안(+73.7%), 미국(+68.7%), EU(+55.7%)도 고르게 증가함. 대미 수출은 반도체·컴퓨터·전기기기·철강 등 AI 데이터센터 관련 품목이 견인한 반면, 자동차는 관세 대응을 위한 현지생산 확대로 부진함.
- “ 7월 수출은 외형과 저변이 모두 개선되었으나, 증가율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가격과 유가 등 단가 효과에 기인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.
- 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조치와 중동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하반기 증가율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. 다만 반도체 외 품목의 개선과 지역 다변화는 수출 기반의 질적 개선으로 판단되며, 반도체 수출은 3분기까지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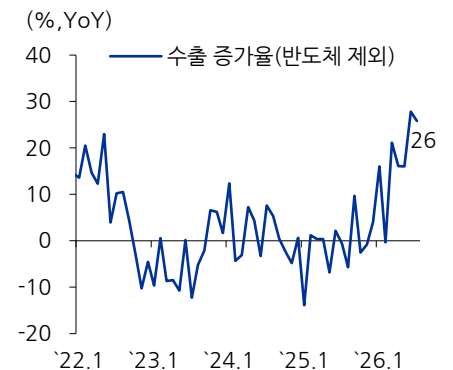
7월 수출은 +62.8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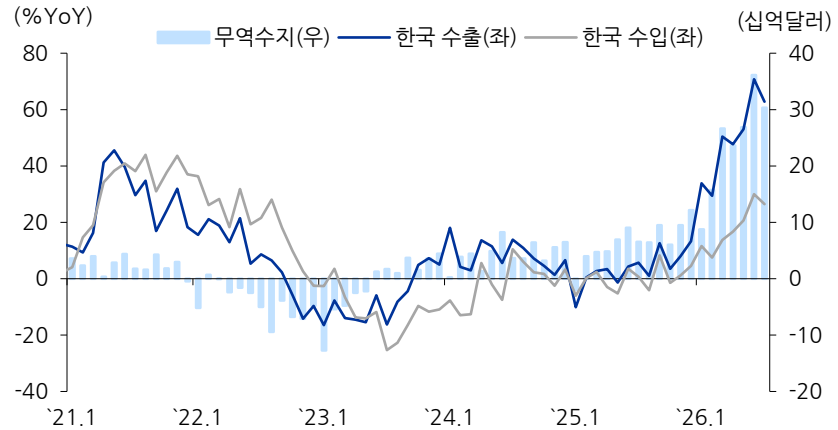
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+178.8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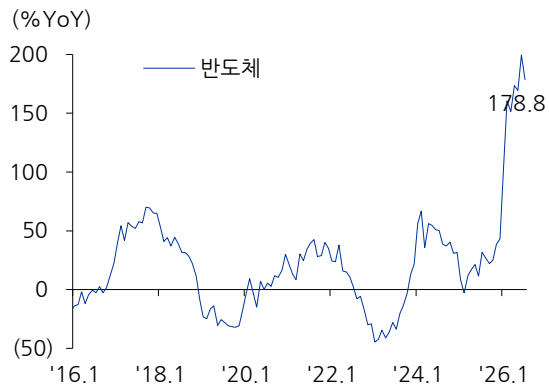


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+26.0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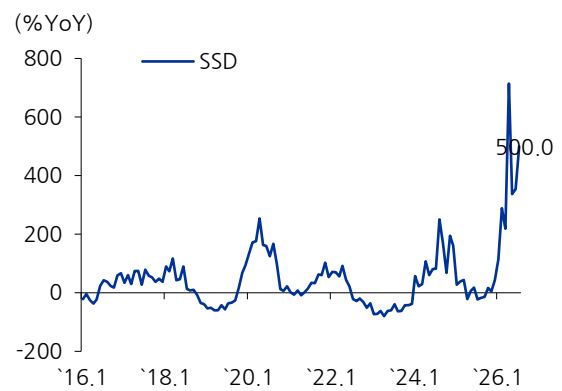


韓 7월 수출 +62.8%, 무역수지 303.2억 흑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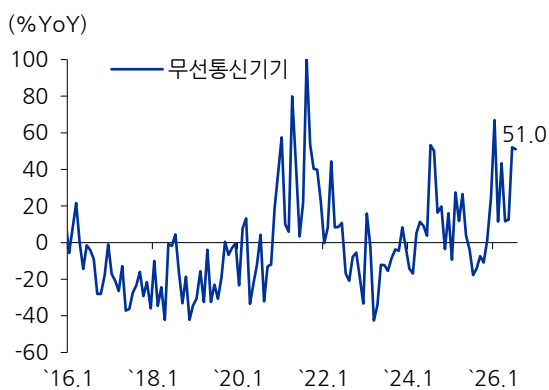


반도체 수출 +178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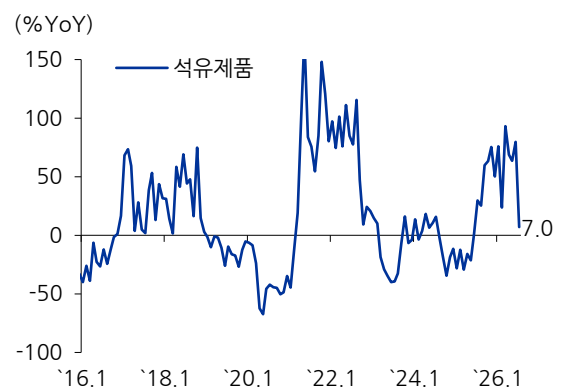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SSD 수출 +5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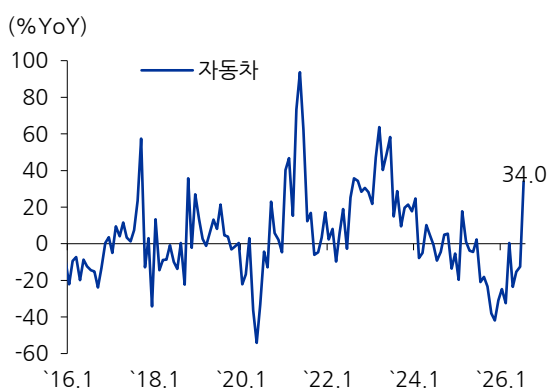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무선통신기기 수출 +51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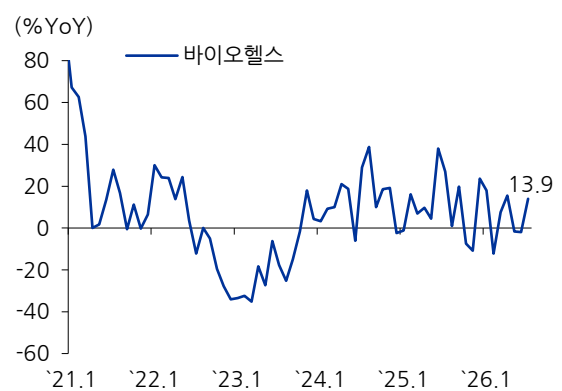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석유제품 수출 +7.0%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자동차 수출 +34.0%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바이오헬스 수출 +13.9%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